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동태적 의미

— ‘了’ 부가를 중심으로

최 신 혜*

< 목 차 >

1. 들어가며
2. 형용사와 동사 범주에 대한 고찰
 - 2.1 Langacker의 범주 이론
 - 2.2 石毓智·白解紅(2006)의 영어와 중국어의 형용사
 - 2.3 張國憲(2006)의 변화형용사
3.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동태적 의미
 - 3.1 ‘변화형용사+了’의 한국어 대응 표현
 - 3.2 변화형용사의 ‘了’ 부가 의미
 - 3.3 언어 유형에 따른 범주화의 차이
4. 나오며

1. 들어가며

현대중국어에서 형용사 범주의 존재 여부 및 그 경계성을 두고 중국어법학계에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어 왔다. 이는 중국어의 형용사가 유형학적으로 형용사의 보편적인 특징을 지니면서도, 1) 일반적으로 동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ci-ne@hanmail.net)

1) Dixon(2004)은 범언어에서 나타나는 형용사의 전형적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 속성 의미를 나타내는 진술로서, 형용사는 자동사술어(intransitive predicate) 혹은 계사의 보충어(copula complement)로 부호화된다.

b. 명사구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함께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에서 형용사를 동사와 구분되는 독립된 범주로 인정할 것인지,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오늘날까지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어떠한 관점과 기준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일부 단어의 실제 품사 판별이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현대중국어에서 형용사가 통사적으로 동사와 구분되는 대표적인 특징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빈어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사의 경우, 일부 심리동사나 조동사를 제외하고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형용사는 ‘발생’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빈어와 공기하지 않으므로, 빈어를 지니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²⁾

현대중국어에서 형용사를 동사와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了’와 같은 상(相) 표지의 부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사는 시간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이러한 시간성은 상 표지를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상 표지를 지니는 것은 동사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형용사는 속성 의미를 나타내고, 속성 의미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의미자질을 지니지 않지만, 중국어에서 형용사에 상 표지가 붙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了’와 공기하여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그러하다.

- (1) a. 媽媽的病好了。
엄마의 병이 나았다.
b. 電腦坏了。

또한 일부 언어의 형용사는 다음 두 가지 기능을 더 지니기도 한다고 하였다.

- c. 비교구문에서 비교매개변수(parameter of comparison)로 작용한다.
d. 원형 또는 파생된 방법으로 동사를 수식한다.

중국어의 형용사는 속성 의미를 나타내는 진술문에서 자동사술어로 부호화되며, 명사구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비교구문에 사용되며, 원형 또는 ‘地’를 더한 형태로 동사를 수식하여, Dixon(2004)이 제시한 형용사의 네 가지 특징에 모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崔信惠 2017 참조)

- 2)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빈어 공기 현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신혜(2020)를 참조하기 바란다.

컴퓨터가 고장났다.

- c. 衣服都濕了。
 옷이 다 젖었다.
- d. 鴨蛋都臭了。
 오리알이 모두 상했다.

(CCL)

예(1)의 ‘好’, ‘坏’, ‘濕’, ‘臭’는 모두 형용사로, 위 예문에서 ‘了’와 함께 쓰여 해당 형용사가 지니는 속성 의미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변화’는 속성이 지니는 ‘항구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사가 지니는 ‘동태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예(1)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을 보면, 각각 ‘났다’, ‘고장났다’, ‘젖다’, ‘상하다’가 사용되었고, 이들은 모두 한국어에서 동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국어 형용사에 ‘了’가 부가된 표현은 한국어에서 대체로 동사 또는 동사로 여겨지는 표현에 대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어 학습자에게 있어, 중국어 형용사를 동사와 혼동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형용사를 동사와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了’³⁾ 부가를 중심으로, 형용사의 동태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어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유형학적 관점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3) 형용사 뒤에 출현하는 ‘了’에 대해서는 각각 ‘了₁’(동태조사), ‘了₂’(어기조사), ‘了₁₊₂’(동태조사+어기조사)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질 끝이나 문미에 출현하여 구분이 힘든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는 ‘형용사+了’는 변화의 완성 또는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나타내므로 ‘了₁₊₂’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張國憲(2006)은 ‘了’가 형용사 뒤에 부가되어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를 ‘了₁₊₂’로 보았다. 본고에서 다루는 형용사 뒤에 출현하는 ‘了’ 역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了₁₊₂’에 해당하며, ‘太+형용사+了₂’에서처럼 단순히 어기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형용사와 동사 범주에 대한 고찰

중국어 형용사의 범주를 논하기 위해, 우선 품사 범주에 대해 논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Langacker의 범주 이론

여기에서는 Langacker의 주장을 중심으로 인지문법에서 바라보는 언어의 품사 범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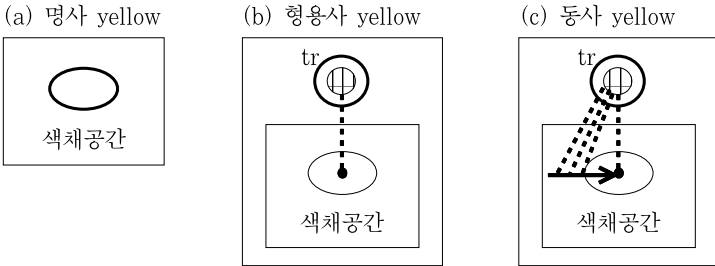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여 부호화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언어의 범주를 살피기 위해 우선 세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지문법에서는 이 세계가 ‘개체’들과 이 개체들 사이의 ‘상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개체들은 언어에서 명사로 부호화되고, 상호 관계는 동사나 형용사 등으로 부호화된다.

Langacker는 윤곽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문법 부류가 결정된다고 보았는데, 명사는 ‘물체(thing)’를 윤곽으로 하고, 동사는 ‘과정(process)’을 윤곽으로 하며, 형용사는 ‘비시간적 관계(atemporal relation)’를 윤곽으로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의 ‘yellow’는 다음과 같은 윤곽 부여에 따라 각각 명사, 형용사, 동사로 구별되어진다.

www.kci.go.kr

4) 2.1절의 내용은 Langacker(1987, 1999, 2008), 김종도(2002)를 참고하여 서술되었다.

<그림1, Langacker(1999), 윤곽 부여에 따른 품사 구분의 예>



<그림1>에서 (a)는 ‘yellow’가 명사일 때, 색채공간(가능한 색채 감지의 범위)의 한 영역을 윤곽으로 함을 나타낸다. 윤곽화된 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시되었다. 여러 색채 영역 가운데 ‘노랑’이라는 하나의 지역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b)는 ‘yellow’가 형용사일 때의 윤곽 부여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식의 ‘tr’은 탄도체(trajection)로 관계의 참여자들 중 가장 현저한 개체를 나타낸다. 형용사의 경우, 해당 형용사가 서술하는 대상이 탄도체가 된다. ‘속성’은 어떠한 개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속성을 지니는 개체가 해당 속성 의미의 탄도체가 되는 것이다. (b)에서 탄도체 내의 빗금 쳐진 원은 이 개체(탄도체)와 연관된 색채 감각을 나타낸다. 따라서 (b)는 탄도체와 연관된 색채 감각이 색채공간의 노랑 영역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yellow flower(노란 꽃)’는 탄도체인 ‘flower’와 연관된 색채 감각이 색채공간 가운데 ‘yellow’ 영역 내에 해당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c)는 탄도체의 색이 ‘yellow’ 영역 바깥의 색으로부터 ‘yellow’ 영역 내에 들어가는 과정을 윤곽으로 하고 있다. 굵은 점선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다. ‘yellow’가 이처럼 과정을 윤곽으로 하면 동사 범주로 이해되어 ‘노랗게 되다’, ‘노래지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처럼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분 상태들이 달라져 형상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시간적 관계에 해당한다. 반면, 비시간적 관계는 시간의 경과가 형상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즉, 성분 상태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상의 변화를 초래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과정’과 ‘비시간적 관계’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Langacker에 따르면, 변화는 과정에 해당하고, 과정은 동사로 부호화된다. 이에 비해, 형용사는 변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비과정, 비시간적 관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지문법의 범주 이론에 따르면, 예(1)에 나타나는 변화 의미는 과정에 해당하고, 이는 동사 범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1)의 ‘好’, ‘坏’, ‘濕’, ‘臭’는 현대중국어에서 대체로 모두 형용사로 보고 있으며, 예(1)과 같은 표현의 경우, 형용사에 ‘了’가 부가되어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2 石毓智·白解紅(2006)의 영어와 중국어의 형용사

石毓智·白解紅(2006)은 위에서 살펴본 Langacker의 주장, 즉 동사는 시간적 관계(과정)를 나타내고, 형용사는 비시간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중국어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Langacker의 주장은 그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일종의 표준적인 언어로 삼아 서술한 것이라 보았다. 이들은 영어와 중국어는 사물의 속성에 대한 인식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두 언어의 형용사의 개념화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의미구조 및 통사 기능에도 차이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영어와 중국어 이 두 언어에서 형용사의 개념화 방식 및 의미구조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2) a. 영어는 성질 및 그 정도를 정태적(靜態的)인 것으로 보고, 형용사의 의미구조 자체에 시간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 b. 중국어는 성질 및 그 정도를 동태적(動態的)인 것으로 보고, 형용사의 의미구조 자체에 시간 과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사물의 속성을 나타낼 때는 종종 사물을 나타내는 주어와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 사이에 이들을 연결해주는 시간 정보를 필요로 하는

데, 영어의 형용사가 자체적으로 시간 과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표층 형식에서 반드시 동사(be동사 등)를 빌어 시간 정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어 형용사는 직접 술어로 기능하며, 다른 동사성 성분의 연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 (3) a. These flowers are beautiful.
 a' *These flowers beautiful.
 b. 這些花十分漂亮.
 b' *這些花是十分漂亮.

(石毓智·白解紅 2006)

또한 중국어의 형용사는 자체적으로 시간 과정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용사 앞뒤에 직접 문법 표지나 시간부사를 붙여 시간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다른 동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였다. 형용사에 상 표지 '了'를 부가하는 것 역시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고대중국어에서는 형용사의 사동(使動) 용법처럼 형용사와 동사의 통사적 기능이 교차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 역시 중국어 형용사가 자체적으로 동태적인 시간 과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현상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영어의 형용사는 빈어를 지니는 용법이 없으며, 고대영어에서 일부 형용사가 접사 '-en'을 붙여 형태를 변화하여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⁵⁾ 현대영어에서는 이미 비생산적인 방식이 되었다고 하였다. 오늘날 영어에서는 'make/have+N+A'의 구조로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동사 'make/have'가 동태적인 시간 과정을 나타내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石毓智·白解紅(2006)은 영어 형용사가 자체적으로 동태적 시간 과정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수단을 빌어 동태적 의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www.kci.go.kr

5) rich-richen, red-redden, black-blacken, wide-widen, strong-strengthen 등이 이에 해당한다. (石毓智·白解紅 2006)

그러나 필자는 과연 중국어 형용사가 자체적으로 동태적인 시간 과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선, 石毓智·白解紅(2006)은 고대중국어에서의 형용사의 사동 용법이 오늘날 현대중국어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오늘날 현대중국어에서 형용사가 빈어를 지니는 경우는 드물며, 그들이 제시한 ‘熱了一碗飯’, ‘端正學習態度’, ‘豐富我們的生活’에서 ‘熱’, ‘端正’, ‘豐富’의 사동 용법은 현재 《現代漢語詞典(第6版)》에 모두 동사 품사의 의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방향성의 문제이다. 石毓智·白解紅(2006)은 중국어가 성질을 동태적인 것으로 보고, 형용사의 의미구조 자체에 시간 과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중국어의 형용사가 자체적으로 동태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통사적 특징을 보이는 것인지, 반대로 중국어의 형용사가 동사와 형태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하나의 형태로 동사의 통사적 특징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용사에 동사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 것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3 張國憲(2006)의 변화형용사

張國憲(2006)은 현대중국어 형용사를 [±정태(靜態 static)] 의미자질에 따라 ‘정태(靜態)형용사’와 ‘동태(動態)형용사’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정태형용사는 시간구조가 균일하여 내재적 자연 시작점과 종결점이 결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了’, ‘着’ 등의 형태 표지를 지닐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정태형용사는 대체로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된다.

- (4) a. 西山的景色非常优美.
서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b. 小紅比小蘭文靜.

샤오홍이 샤오란보다 안전하다.

(張國憲 2006)

이에 비해, 동태형용사는 시간구조가 이질적이어서 내재적 자연 시작점과 종결점을 지닐 수 있고, 일반적으로 '了', '着' 등의 상 표지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용사는 변화를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 (5) a. 汽車發動機坏了。
자동차 엔진이 고장났다.
b. 他的傷已經好了。
그의 상처는 이미 나왔다.

(張國憲 2006)

그는 정태형용사를 다시 시간성에 따라 '성질(性質)형용사'와 '상태(狀態)형용사'로 나누었는데, 성질형용사는 항구적이며, 상태형용사는 임시적인 특징을 지닌다. 한편 동태형용사는 변화 의미를 나타내므로, '변화(變化)형용사'로 칭하였다. 아래 예(6)은 각각 성질형용사, 상태형용사, 변화형용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6) a. 井水涼, 不像河水, 不能沖澡。(성질형용사)
우물물은 차고, 강물 같지 않아서, 목욕을 할 수 없다.
b. 晚上井水冰涼的, 我不敢沖澡。(상태형용사)
밤 우물물은 차디차서, 나는 목욕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c. 水涼了, 可以沖澡了。(변화형용사)
물이 식어서 목욕할 수 있게 되었다.

(張國憲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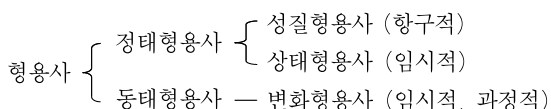
그에 따르면, 변화형용사가 성질형용사 및 상태형용사와 구분되는 특징은 과정성(過程性)이다. 정태형용사는 과정의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동태형용사, 즉 변화형용사는 과정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 | 항구성(恒常性) | 임시성(臨時性) | 과정성(過程性) |
|--------|----------|----------|----------|
| 성질(性質) | + | - | - |
| 상태(狀態) | - | + | - |
| 변화(變化) | - | + | + |

<표1. 張國憲(2006), 성질, 상태, 변화의 시간성 및 과정성 특징>

이상 張國憲(2006)이 제시한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張國憲(2006), 현대중국어 형용사 체계



즉, 張國憲(2006)은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라는 전통적인 중국어 형용사 부류 외에 과정의 의미자질을 지니며, 了와 공기하는 형용사를 ‘변화형용사’라는 범주를 통해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변화형용사는 시간부사 ‘已經’과 상 표지 ‘了’와 함께 출현할 수 있으며, 이들 변화 의미의 부정은 ‘沒’로 실현된다. 이는 정태형용사가 ‘不’로 부정되는 것과 대비된다.

- (8) a. 花已經紅了。
 꽃이 이미 빨개졌다.
 a'. 花沒紅。
 꽃이 빨개지지 않았다.
 b. 米飯已經熟了。
 밥이 이미 익었다.
 b'. 米飯沒熟。
 밥이 익지 않았다.

(張國憲 2006)

종합해 보면, 石毓智·白解紅(2006)과 張國憲(2006)은 모두 현대중국어 형용사 범주 내에 과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과정, 즉 변화의 의미는 동사로 부호화되며, 형용사는 비과정에 해당한다는 Langacker(1987, 1999, 2008)의 주장과 상반됨을 알 수 있다.

3.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동태적 의미

이 장에서는 張國憲(2006)이 제시한 전형적인 변화형용사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동태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중국어 형용사가 동태적 의미를 지니는 원인을 한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유형학적 시각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3.1 ‘변화형용사+了’의 한국어 대응 표현

앞서 소개하였듯이, 張國憲(2006)은 시간부사 ‘已經’과 상 표지 ‘了’와 공기할 수 있으며, ‘沒’로 부정되는 것을 변화형용사의 특징으로 보고,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형용사를 전형적인 변화형용사로 보았다. 그는 《漢語形容詞用法詞典》의 1,066개 형용사 항목 가운데 ‘NP+已經+___+了’, ‘NP+沒+___’, 이 두 구문을 만족시키는 82개의 전형적인 변화형용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⁶⁾

(9) 張國憲(2006)의 전형적인 변화형용사:

扁 殘 長 潮 沉₂ 臭₁ 粗 錯₁ 大₁ 低_{1,2} 短 鈍 多₂ 反 肥₁ 富

6) 아래 (9)에서 각 형용사 옆에 제시된 숫자는 《漢語形容詞用法詞典》에 수록된 해당 단어의 여러 의미 항목 가운데 변화형용사 용법에 해당하는 의미 항목을 나타낸다.

干 高₁ 貴 早 好_{2,3} 黑_{1,2} 紅₁ 糊塗₁ 坏₂ 灰心 急_{1,2} 賤₁ 驕傲₁
 旧₂ 空 快₁ 辣 爛 老_{1,6} 累 冷 凉 亮 綠 亂 落后 麻 馬虎
 滿₁ 慢₁ 明白 胖 偏 便宜 破 齊₃ 清 輕_{1,2} 渾 晴 熱 軟_{1,2} 傻₁
 少 濕 瘦_{1,2} 熟_{1,2} 松 酥 酸₁ 酸₂ 碎₁ 疼 甜₁ 歪 彎 晚 旺 香₁
 斜 硬₁ 圓 臟 糟 窄₁ 直₁

필자는 그가 제시한 이들 전형적인 변화형용사의 사전에서의 품사 기재 현황과 이들 의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조사해보았는데, 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위에 제시된 82개 항목 가운데 '殘', '多₂', '亮', '碎', '斜'이 5개 항목은 《現代漢語詞典(第6版)》에 근거해볼 때, '了'와 공기하는 경우 해당 의미 항목이 동사에 해당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는 이 5개 항목의 《現代漢語詞典(第6版)》에서의 뜻풀이 및 품사 표기를 정리한 표이다.

| | 뜻풀이 | 품사 |
|----------------|------------------------|---------|
| 殘 | 不完整; 殘缺 | 동사 |
| 多 ₂ | 超出原有或應有的數目; 比原來的數目有所增加 | 동사 |
| 亮 | 光線強; 發光 | 형용사; 동사 |
| 碎 | 完整東西破成零片零塊 | 동사 |
| 斜 | 跟平面或直線既不平行也不垂直的; 傾斜 | 형용사; 동사 |

<표2. 殘, 多₂, 亮, 碎, 斜의 뜻풀이 및 품사>

<표2>에서 '亮'과 '斜'의 경우, 사전에 형용사와 동사의 품사가 모두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 두 단어의 표 안 뜻풀이에서 첫 번째 뜻풀이가 형용사, 두 번째 뜻풀이가 동사 품사에 해당한다. '了'와 공기하는 예는 대체로 동사의 의미 항목에 해당한다. 이들 5개 항목이 '了'와 공기하는 예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10) 這部書很好, 可惜殘了。(《現代漢語詞典(第6版)》)

이 책은 매우 좋은데, 아쉽게도 훼손되었다.

(11) 這句話多了一個字。(《現代漢語詞典(第6版)》)

이 문장은 글자가 하나 늘었다.

- (12) 天亮了。(《現代漢語詞典(第6版)》)
 날이 밝았다.
- (13) 那个杯子也碎了。(《漢語形容詞用法詞典》)
 그 컵도 깨졌다.
- (14) 牆往外斜了。(《漢語形容詞用法詞典》)
 벽이 바깥으로 기울었다.

이들은 모두 동사 의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특징을 보였고, ‘很’의 수식을 받는 예는 해당 단어의 형용사 의미 항목에 해당하였다. 예를 들어, ‘很多’의 ‘多’는 수량이 많음을 나타내는 ‘數量大’라는 형용사 의미 항목에 해당하며, ‘很亮’은 ‘光線強(밝다?)’에 해당하는 형용사 의미 항목에 정도부사 ‘很’의 수식을 받은 것이다.

- (10)’ *這部書很好, 可惜很殘.
- (11)’ *這句話很多一個字.
- (12)’ *天很亮. (단, 형용사 의미 항목 ‘光線強’인 경우 가능)
- (13)’ *那個杯子也很碎.
- (14)’ *牆往外很斜.

앞서 언급한 대로 변화형용사는 ‘了’와 공기하는 특징을 지니므로, 필자는 동사로 볼 수 있는 위 5개 항목을 제외한 77개의 전형적인 변화형용사 항목에 ‘了’가 부가된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아래는 이들 전형적인 변화형용사에 ‘了’를 부가한 경우 한국어에서의 대응 표현을 정리한 표이다.

| | | 한국어 대응 표현 | | | 한국어 대응 표현 |
|---|----|-----------|----|-----|------------|
| 1 | 扁了 | 납작해지다 | 40 | 麻了 | 얼얼해지다, 저리다 |
| 2 | 長了 | 길어지다 | 41 | 馬虎了 | 소홀해지다 |

7) ‘亮’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 ‘밝다’ 역시 형용사와 동사 품사를 지닌다. ‘불빛 따위가 환하다’의 의미는 형용사에,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는 동사에 해당하며, 이는 각각 ‘亮’의 형용사, 동사 의미에 대응된다.

8) ‘彎了’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 ‘굽다’는 ‘한쪽으로 휘다’는 의미의 동사에 해당한다. (《표준국어사전》 참조)

| | | | | | |
|----|--------------------|----------------|----|--------------------|-------------------------|
| 3 | 潮了 | 눅눅해지다, 축축해지다 | 42 | 滿了 | 차다 |
| 4 | 沉 ₂ 了 | 무거워지다 | 43 | 慢了 | 느려지다 |
| 5 | 臭 ₁ 了 | 취하다, 상하다, 썩다 | 44 | 明白了 | 명백해지다 |
| 6 | 粗了 | 굵어지다, 두꺼워지다 | 45 | 胖了 | 똥똥해지다, 살찌다 |
| 7 | 錯 ₁ 了 | 틀리다 | 46 | 偏了 | 기울다, 치우치다, 쏠리다 |
| 8 | 大 ₁ 了 | 커지다 | 47 | 便宜了 | 싸지다 |
| 9 | 低 _{1,2} 了 | 낮아지다 | 48 | 破了 | 낡다, 헐다 |
| 10 | 短了 | 짧아지다 | 49 | 齊 ₃ 了 | 갖추어지다, 완비되다 |
| 11 | 鈍了 | 무디어지다 | 50 | 清了 | 맑아지다 |
| 12 | 反了 | 바뀌어지다, 반대로 되다 | 51 | 輕 _{1,2} 了 | 가벼워지다 |
| 13 | 肥了 | 살찌다 | 52 | 渾了 | 흐려지다, 탁해지다 |
| 14 | 富了 | 부해지다 | 53 | 晴了 | 맑아지다 |
| 15 | 干了 | 마르다 | 54 | 熱了 | 뜨거워지다, 더워지다 |
| 16 | 高了 | 높아지다 | 55 | 軟 _{1,2} 了 | 부드러워지다, 약해지다 |
| 17 | 貴了 | 비싸지다 | 56 | 傻 ₁ 了 | 멍해지다, 미련해지다 |
| 18 | 旱了 | 가물다 | 57 | 少了 | 적어지다 |
| 19 | 好了 | 좋아지다, 낫다 | 58 | 濕了 | 축축해지다, 젖다 |
| 20 | 黑了 | 까매지다, 어두워지다 | 59 | 瘦 _{1,2} 了 | 마르다, 야위다 |
| 21 | 紅 ₁ 了 | 붉어지다, 빨개지다 | 60 | 熟 _{1,2} 了 | 여물다, 익다 |
| 22 | 糊塗了 | 호리멍당해지다 | 61 | 松了 | 느슨해지다 |
| 23 | 坏 ₂ 了 | 상하다, 고장나다, 탈나다 | 62 | 酥了 | 바삭해지다, 물렁해지다 |
| 24 | 灰心了 | 의기소침해지다, 낙심하다 | 63 | 酸 ₁ 了 | 시큼해지다 |
| 25 | 急了 | 조급해지다, 초조해지다 | 64 | 酸 ₂ 了 | 저리다 |
| 26 | 賤了 | 싸지다 | 65 | 疼了 | 아파지다 |
| 27 | 驕傲了 | 교만해지다 | 66 | 甜了 | 달게 되다 |
| 28 | 旧 ₂ 了 | 낡다, 헐다 | 67 | 歪了 | 기울다, 비뚤어지다 |
| 29 | 空了 | 비다, 공허해지다 | 68 | 彎了 | 굽다, ⁸⁾ 구부러지다 |
| 30 | 快 ₁ 了 | 빨라지다 | 69 | 晚了 | 늦다 |
| 31 | 辣了 | 매워지다 | 70 | 旺了 | 왕성해지다, 무성해지다 |
| 32 | 爛了 | 썩다, 문드러지다 | 71 | 香 ₁ 了 | 향긋해지다, 향기로워지다 |
| 33 | 老了 | 늙다, 나이들다 | 72 | 硬 ₁ 了 | 굳다, 단단해지다 |
| 34 | 累了 | 지치다 | 73 | 圓了 | 둥그레지다 |
| 35 | 冷了 | 차가워지다, 추워지다 | 74 | 臟了 | 더러워지다, 지저분해지다 |
| 36 | 涼了 | 차가워지다 | 75 | 糟 ₁ 了 | 썩다 |
| 37 | 綠了 | 파래지다 | 76 | 窄 ₁ 了 | 좁아지다 |
| 38 | 亂了 | 어지러워지다 | 77 | 直 ₁ 了 | 곧아지다 |
| 39 | 落后了 | 낙후되다, 뒤떨어지다 | | | |

<표3. '변화형용사+了'의 한국어 대응 표현>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전형적인 변화형용사에 '了'가 부가된 표현

은 한국어에서 대체로 동사에 대응되거나 또는 형용사 기본형에 ‘-어지다’가 더해진 동사형에 해당하였다. 우선, ‘변화형용사+了’의 한국어 대응 표현이 형용사에서 파생되지 않은 동사에 직접 대응되는 경우가 26개였는데, 다음과 같다.

| | 한국어 대응 표현 | | 한국어 대응 표현 |
|------------------|----------------|--------------------|------------------|
| 臭 ₁ 了 | 취다, 상하다, 썩다 | 麻了 | 저리다 |
| 錯 ₁ 了 | 틀리다 | 滿 ₁ 了 | 차다 |
| 肥了 | 살찌다 | 胖了 | 살찌다 |
| 干了 | 마르다 | 偏了 | 기울다, 치우치다, 쏠리다 |
| 旱了 | 가물다 | 破了 | 납다, 헐다 |
| 好了 | 났다 | 濕了 | 젖다 |
| 坏 ₂ 了 | 상하다, 고장나다, 탈나다 | 瘦 _{1,2} 了 | 마르다, 야위다 |
| 旧 ₂ 了 | 납다, 헐다 | 熟 _{1,2} 了 | 여물다, 익다 |
| 空了 | 비다 | 酸 ₂ 了 | 저리다 |
| 爛了 | 썩다 | 歪了 | 기울다, 비뚤어지다 |
| 老了 | 늙다, 나이들다 | 晚了 | 늦다 ⁹⁾ |
| 累了 | 지치다 | 硬 ₁ 了 | 굳다 |
| 落后了 | 낙후되다, 뒤떨어지다 | 糟 ₁ 了 | 썩다 |

<표4. ‘변화형용사+了’가 한국어 동사에 대응되는 예>

<표3>의 77개의 ‘변화형용사+了’ 가운데 위 <표4>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형용사에 ‘-어지다’가 더해진 형태에 대응되었다. ‘反了-반대로 되다’, ‘甜了-달게 되다’처럼 ‘-되다’형을 띠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다’형에 대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지다’는 보조동사 ‘지다’가 형용사 뒤에 붙어 해당 형용사가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데, <표3>에서 ‘-어지다’형을 지닌 표현은 단어의 자격으로 동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형용사에서 파생된 표현의 자격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 ‘길어지다(長了)’, ‘굵어지다(粗了)’, ‘커지다(大₁了)’, ‘높아지다(高了)’, ‘빨라지다(快₁了)’, ‘차가워지다(冷了)’, ‘맑아지다(清了)’처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의 경우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동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사전에 한 단

9) ‘늦다’는 형용사와 동사 품사로 나뉘는데, ‘晚了’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 ‘늦다’는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는 의미의 동사 품사에 해당한다. (<표준국어사전> 참조)

어로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에게는 이들 표현이 형용사가 아닌 동사로 여겨지는데, 이는 형용사 뒤에 해당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지다’, ‘-게 되다’의 형태로 인해 동태적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어의 변화형용사에 ‘了’가 부가된 표현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에게 동태적 의미로 인지되고, 이러한 동태적 의미는 한국어에서 동사 또는 동사형에 대응되고 있다.

3.2 변화형용사의 ‘了’ 부가 의미

현대중국어에서 형용사에 상 표지 ‘了’가 부가된 표현이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가 ‘了’와 공기한 형용사 자체의 내적 의미인가, ‘了’가 부여한 의미인가이다. 앞서 石毓智·白解紅(2006)은 중국어 형용사는 성질을 동태적으로 보고, 형용사의 의미구조 자체에 시간 과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張國憲(2006)은 과정의 의미자질을 지니는 형용사를 변화형용사라고 하여, 형용사 범주 내에 동태적 의미를 지니는 부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이들은 모두 형용사 내에 이미 과정적, 동태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3.1절의 <표3>을 통해 우리는 중국어의 변화형용사에 ‘了’가 부가된 표현이 한국어에서 동사 또는 동사형에 대응됨을 살펴보았다. 역으로 보면, 한국어의 동사 또는 동사형이 나타내는 동태적 의미가 ‘변화형용사+了’에 대응된다는 것인데, 이로써 동태적 의미는 변화형용사 자체의 의미라기보다 ‘변화형용사+了’ 구조가 나타내는 의미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 변화형용사가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상 표지와 공기해야 하며, 대부분 변화형용사 단독으로는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 (15) a. 臭了的豆腐 → *臭豆腐
 b. 酸了的牛奶 → *酸牛奶
 c. 臟了的內衣 → *臟內衣

(張國憲 2006)

(15)에서 왼쪽의 예는 변화형용사에 ‘了’가 부가된 후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해당 형용사가 나타내는 속성으로 변화된 명사를 나타내어, 각각 ‘썩 두부’, ‘썩 우유’, ‘더러워진 속옷’에 해당한다. 반면 오른쪽의 예는 각각 ‘취두부’, ‘요구르트’, ‘더러운 속옷’을 나타내는데, 모두 변화의 의미가 없고, 다만 해당 형용사가 나타내는 속성을 지니는 명사를 나타낸다. 특히 ‘臭豆腐’, ‘酸牛奶’의 경우, 이미 해당 성질을 지니는 한 부류로서 단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왼쪽의 변화의 의미를 포함한 수식 구조를 오른쪽과 같이 ‘了’가 없는 형태로 대응시키면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게 되며, 지시하는 바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표3>에 제시된 77개의 변화형용사는 BCC와 CCL 코퍼스¹⁰⁾ 검색 결과, 대체로 정도부사 ‘很’과 공기할 수 있었는데,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것은 정도성 의미자질이 있음을 나타내고, 정도성 의미자질은 속성 의미의 대표적인 특징이므로, 변화형용사가 정도부사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태적인 속성 의미를 나타냄을 뜻한다.

- (16) a. 他的衣服很濕。(정태적)
 그의 옷이 매우 축축하다.
 a'. 他的衣服濕了。(동태적)
 그의 옷이 젖었다/축축해졌다.
 b. 水很涼。(정태적)
 물이 매우 차다.
 b'. 水涼了。(동태적)
 물이 차가워졌다/식었다.
 c. 花很紅。(정태적)
 꽃이 매우 빨갱다.

10) <http://bcc.blcu.edu.cn>(北京語言大學語料庫), <http://ccl.pku.edu.cn>(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語料庫)

c'. 花已經紅了。(동태적)
꽃이 벌써 빨개졌다.

이처럼 변화형용사로 제시된 대부분의 단어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며 정태적인 속성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了'와 공기하여 동태적인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의 의미가 변화형용사의 단어 내적 의미라기보다, 이들 형용사의 정태적 속성 의미에 상 표지 '了'가 부가됨으로써 나타나는 의미라고 본다.

77개의 변화형용사 가운데 정도부사 '很'의 수식을 받지 않는 경우는 '錯', '反', '坏₂', '熟_{1,2}', '歪' 5개였는데, 이들은 비등급형용사와 동태성이 강한 형용사에 해당한다. 이 중 '錯', '反', '坏₂', '歪'는 비등급형용사에 해당하는데, 등급형용사가 속성의 척도를 지녀 정도성 의미자질을 지니는 것과 달리, 비등급형용사는 '對-錯', '正-反'처럼 중간 단계를 지니지 않는 양분된 개념을 나타내므로 해당 속성을 나타낼 뿐 정도성 의미자질을 지니지는 않는다. 한편, '熟_{1,2}'는 각각 '植物的果實等完全長成(여물다)', '(食物)加熱到可以食用的程度(익다)'의 의미로 단어 자체에 변화의 의미가 분명하므로, 동태성이 강하여 정태적 속성을 나타내는 정도부사와 공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퍼스 검색 결과, '熟'가 '很'의 수식을 받는 경우는 '我跟他很熟', '睡得很熟'처럼 다른 의미 항목으로 사용될 때에 해당하였다.

예(16)을 보면, 변화형용사는 하나의 형태로 정태적 의미와 동태적 의미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한국어 대응 표현은 '축축하다-축축해지다/젖다', '차다-차가워지다/식다', '빨갳다-빨개지다'로 정태적 의미와 동태적 의미의 형태가 각각 형용사와 동사(동사형)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정태적 의미는 형용사로, 동태적 의미는 동사 또는 동사형으로 부호화되며, 정태/동태 의미가 형태적으로 구분된다.

3.3 언어 유형에 따른 범주화의 차이

이상 변화형용사가 사용된 예와 한국어의 대응 상황을 통해, 한국어는 동태적 의미를 동사 또는 동사형으로 부호화하며, 형용사로 인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과정적 의미는 동사로 부호화되며, 형용사는 비과정에 해당한다는 Langacker의 주장에 부합하며, 이로써 동사와 형용사의 범주 구분에 대한 의미적 기준에 있어 한국어와 영어는 같은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Dixon(2004)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형용사가 진술문에 사용될 때의 기능 면에서 한국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계사나 다른 동사의 도움 없이 직접 술어로 기능하여 '동사성(verb-like) 형용사'에 속한다. 영어의 형용사는 진술문에서 직접 술어로 기능하지 않고 계사의 보충어(copula complement)로 기능하므로 '비동사성(non-verb-like) 형용사'에 해당한다.¹¹⁾ 이처럼 통사적 기능 면에서 중국어는 한국어와 함께 동사성 형용사로 같은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의미 측면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어의 형용사가 한국어나 영어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앞서 石毓智·白解紅(2006)은 영어는 형용사의 의미구조 자체에 시간 과정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술어로 기능하지 못하고 계사나 다른 동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직접 술어로 기능하지만, 형용사의 의미구조 자체에 시간 과정을 지니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어 형용사가 통사적으로 다른 유형에 속한 영어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한국어와도 의미 측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앞서 살펴본 중국어 변화형용사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통해, 이러한 차이 및 특징이 중국어가 형태 변화가 결여되어 있는 고립어 유형에 해당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앞서 우리는 한국어에서 과정의 의미가 동사로 바로 부호화되거나 형용사에

11) 대부분의 언어에서 형용사는 진술문에서 자동사술어(intransitive predicate) 또는 계사의 보충어(copula complement)로 부호화된다. (Dixon 2004)

보조동사 '지다'가 붙어 동사형을 띠는 것을 살펴보았다. 영어 역시 과정적 의미는 동사로 바로 부호화하거나 또는 형용사의 속성 의미와 연관된 과정적 의미인 경우, 형용사 뒤에 '-ize', '-ify/fy', '-en', '-ate'와 같은 동사형 접사를 붙여 동사형을 띤다. 즉,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과정적 의미가 바로 동사로 부호화되거나, 속성 의미와 관련된 과정적 의미인 경우 보조동사나 접사를 더하는 방식으로 단어 내에서 형태적으로 동사화하는 작업을 거친다. 따라서 형용사와 관련된 과정적 의미라 할지라도 대체로 형태적으로 형용사와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어는 형용사와 관련된 과정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있어, 단어 자체의 형태적 변화 없이, 동일한 형태에 상 표지를 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형태적 수단이 아닌, 통사적 방식을 통해 의미의 차이를 실현하고 있다.

단어의 품사는 형식(form), 기능(function), 의미(meaning)적 특징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 중 형식과 기능이 품사 분류의 주요 기준이 된다.¹²⁾ 한국어와 영어는 각각 교착어와 굴절어로 형태 변화 및 접사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어, 형식적 기준으로도 품사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비해 중국어는 고립어로 형태 변화나 접사가 결여되어 있어 형식적 기준으로 품사를 구분하기 어렵고, 따라서 통사적 기능이 품사 분류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중국어 형용사는 상 표지 '了'를 부가하여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상 표지를 지니는 것은 동사의 일반적인 특징이므로, 형용사가 상 표지 '了'와 공기할 때, 통사적 기준으로는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할 수 없다. 이처럼 동일한 형태에 상 표지 '了'를 부과한 방식은 형태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동사와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형용사가 상 표지 '了'를 지니는 경우, 분명히 정태적 의미와는 다른 '과정'의 의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적 차이를 반영해 줄 형태적, 통사적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형용사를 동사와 구분하기 힘든 문제가 초래되는 것이다.

형용사가 상 표지 '了'와 공기하며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동태적 의미

12) 고영근·구분관(2008:42) 참조.

와 동사적 통사 기능에 근거하여 해당 용법을 동사 품사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대중국어에서 형용사가 ‘了’와 공기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郭銳(2002:197)에 따르면, 2,355개의 형용사 가운데 72%의 형용사가 ‘了’ 또는 ‘着’, ‘過’를 지닐 수 있는데, 이로써 실제로 대다수의 형용사가 상 표지, 특히 ‘了’와 공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모두 동사 품사로 처리할 경우, 대다수의 형용사가 동사 품사를 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띠게 된다. 현대중국어에서 속성과 관련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해당 단어를 동사로 보기보다 형용사로 처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중국어의 형용사는 정태적 의미와 동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에 모두 사용되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의 형태로 두 가지 다른 의미자질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본다.

이상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의 상황을 단어의 형태, 품사, 의미 간 대응 유형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단어의 형태, 품사, 의미 간 대응 유형>

| | | |
|---------------------------------------|--|---|
| ㉞(형) — 정태적 의미 ㉟(동) — 동태적 의미 (I) | ㉞(형) — 정태적 의미(형) ㉟(동) — 동태적 의미(동) (II) | ㉞(형) — 정태적 의미 ㉟(동) — 동태적 의미 (III) |
|---------------------------------------|--|---|

한국어와 영어는 대체로 <그림2-(I)>과 같이 정태적 의미와 동태적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형태(㉞, ㉟)를 지니며 각각 형용사와 동사로 범주화한다. <그림2-(II)>와 같이 하나의 형태가 형용사와 동사의 품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용사는 정태적 의미에 대응되고, 동사는 동태적 의미에 대응된다. 앞에서 살펴본 ‘밝다’나 ‘yellow’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어와 영어는 <그림2-(III)>처럼 하나의 형태가 형용사라는 한 품사로서 정태적 의미와 동태적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경우는 없다. 이에 비해 중국어는 ‘亮’처럼 하나의 형태에 형용사와 동사 품사를 겸하는 (II)유형

에 해당하는 예도 있지만, 대다수의 형용사가 하나의 형태에 형용사라는 한 범주로 정태적 의미와 동태적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그림2-(Ⅲ)>유형에 해당한다.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동태적 의미에 해당하는 동사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에 바로 ‘了’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관련된 변화 의미를 나타내고, 이처럼 형용사가 ‘了’와 공기하며 나타내는 변화의 의미를 형용사 단어 자체의 동태적 의미로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張國憲(2006)은 전형적인 변화형용사가 대부분 단음절 형용사라고 하였는데, 단음절형용사는 의미가 단순하고 사용빈도가 커서 이러한 동태적 의미로의 확대 과정에도 쉽게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나오며

본고는 현대중국어 형용사가 상 표지 ‘了’와 공기하며 동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어 및 영어의 상황과 대조 분석하며 유형학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과정은 동사로, 비시간적 관계는 형용사로 부호화되는 영어나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비시간적 관계뿐 아니라 과정적 의미도 형용사로 부호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石毓智·白解紅(2006)은 중국어는 성질을 동태적인 것으로 보고, 형용사의 의미구조 자체에 시간 과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張國憲(2006)은 중국어 형용사 내에 과정적 의미자질을 지니는 변화형용사라는 범주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어의 변화형용사가 과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了’와 같은 상 표지와 공기해야 하며, 이러한 상 표지의 부가 없이는 대체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변화형용사는 정도부사 ‘很’의 수식을 받아 정태적 표현에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변화의 의미가 변화형용사의 단어

내적 의미라기보다, 이들 형용사의 정태적 속성 의미에 상 표지 ‘了’가 부가됨으로써 나타나는 의미라고 본다.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형태 변화 및 접사가 결여되어 형용사의 정태적 의미에서 파생된 동태적 의미를 반영하는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상 표지 ‘了’를 부가하는 통사적 방식을 통해 동태적 의미를 실현한다. 형용사가 ‘了’와 공기하며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동사로 구별하여 범주화할 수도 있지만, 이는 대다수의 형용사가 동사 품사를 겸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므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기존의 형용사 품사 범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了’와 공기하며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역시 형용사 범주로 보면서, 결과적으로 상 표지의 부가와 같은 통사적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의 의미를 형용사 단어 자체의 동태적 의미로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중국어의 형용사가 통사적 기준에 따라 한국어와 함께 동사성 형용사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기준에 있어서는 한국어와 달리 과정적 의미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고립어라는 언어 유형으로 인한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 김종도(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 박이정.
- 박덕유(2007), 《한국어의 相 이해》, 서울: 제이앤씨.
- 이은수(2003), <현대중국어 先時性 표지 ‘了’>, 《중국어문논총》 24집.
- _____(2012), <了2의 시간 의미 고찰>, 《중국어문학지》 39집.
- 진화진(2012), <현대중국어 ‘沒+일음절 형용사’의 의미>, 《중국어문학논집》 72집.
- 최신혜(2018), <현대중국어 속성어 범주의 품사적 경계 설정>, 《중국어언어연구》 77집.
- _____(2020),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빈어 공기 현상>, 《중국어언어연구》 89집.
- 崔信惠(2017), <類型學視角下的漢語屬性義表達手段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 龔 晨(2009), <“形容詞+動態助詞”結構初探>,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 郭 銳(1997), <過程和非過程——漢語謂詞性成分的兩種外在時間類型>, 《中國語文》第3期。
- _____ (2002), 《現代漢語詞類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_____ (2015), <漢語謂詞性成分的時間參照及其句法後果>, 《世界漢語教學》第4期。
- 李 杰(2009), <試論發生句——對隱現句和領主屬賓句的句式意義的重新審視>, 《世界漢語教學》第1期。
- 李 泉(1997), <現代漢語“形+動態助詞”考察>, 《語言教學與研究》第1期。
- 呂叔湘編(1999),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 石毓智·白解紅(2006), <漢英形容詞概念化的差別及其句法後果>, 《四川外語學院學報》第6期。
- 張國憲(2006), 《現代漢語形容詞功能與認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Dixon, R. M. W. 2004, Adjective clas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Dixon, R. M. W and Alxandra Y. Aikhenvald(eds.) 2004, 1-49.
- Dixon, R. M. W. & Alxandra Y. Aikhenvald(eds.) 2004, *Adjective Classe: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onald W.(1987), *Foundation of Cognitive Linguistics Vol.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종도 역
- (1999), 《인지 문법의 토대 I—이론적 선행 조건들》, 서울: 박이정.
- _____ (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Cognitive Linguistics Research 14, Berlin: Mouton de Gruyter, 김종도·나익주 옮김
- (2001), 《문법과 개념화》, 서울: 박이정.
- _____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나익주·박정운·백미현·안혁·이정화 옮김
- (2014), 《인지문법》, 서울: 박이정.

사전류

《표준국어사전》, 네이버 사전(<https://dict.naver.com/>).

鄭懷德·孟慶海(2003), 《漢語形容詞用法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12), 《現代漢語詞典(第6版)》, 北京: 商務印書館。

< Abstract >

Dynamic Meaning of Modern Chinese Adjectives
— Focusing on Adding ‘*le*’

Choi, Shinhye

This paper examines the phenomenon that modern Chinese adjectives have a dynamic meaning with the aspect marker ‘*le*’, and contrasts them with the situation in Korean and English, and examines them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Unlike English or Korean, where the process is encoded as a verb and the atemporal relation is encoded as an adjective, in Chinese, not only the atemporal relation but also the meaning of the process can be encoded as an adjective.

But in order for adjectives in Chinese to represent the process meaning, they must have a aspect marker like ‘*le*’. Chinese adjectives may represent static attribute meanings under the modifier of degree adverb ‘*hen*’, and may also represent the meaning of dynamic change with ‘*le*’. Therefore, we think that the meaning of change is not the inner meaning of the adjectives, but rather the meaning of the adjectives by adding the aspect marker ‘*le*’ to the static attribute meaning.

Chinese adjectives are ‘verb-like’ adjectives along with Korean according to syntactic criteria. However, in terms of semantic standards, unlike Korean, it has process semantic qualities. This is due to differences in the language type of Chinese as an isolated language.

Key words: adjective, aspect, *le*, dynamic, part of speech, typology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20. 07. 31 | 2020. 08. 12 -08. 22 | 2020. 08. 12 | 2020. 09. 06 | 2020. 09. 30 |

